

특집 I

□ 86년 石油政策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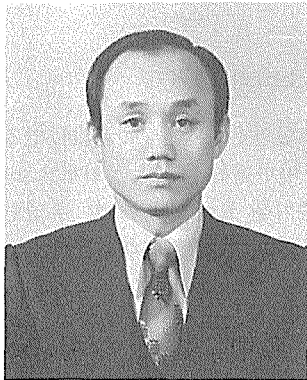
85년 에너지

需給實積

평가 및

86년 에너지

需給計劃



李 東 圭

(動力資源部 에너지政策課長)

I. 최근의 우리 경제 및 에너지 현황

우리 경제는 지난 1, 2차 석유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정부와 온 국민의 합심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 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는 83년 이후의 油價 하락으로 국내 油價와 전력요금등의 인하를 가져옴으로써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물가는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여 도매물가는 연말기준으로 85년중 1.0% 상승하였고, 경상수지 적자는 80년 53억달러에서 9억달러로 축소됨으로써 경제성장은 84년 7.5%, 85년 5%(잠정)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전체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정부는 석유대체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78년도에 63.5%에 달했던 石油의존도를 85년에 48.7% 대폭 감축시키고, 에너지 資源을 多元化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공급체제를 이룩하였으며, 적극적인 소비절약 시책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여 특히 에너지소비와 부가가치가 직결되는 산업부문은 광공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84년 중에는 3.4%, 85년에는 1.2%로 그 증가율이 해마다 둔화되고 있다.

금년에도 국제에너지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안정공급체제 구축과 함께 低價의 原油 및 석탄도입으로 에너지 수입대금을 감축하고 석유대체 및 소비절약에 의한 전체에너지비용 절감과 최적 에너지 수급구조 형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II. 85년도 에너지 需給實積(잠정)

1. 總에너지소비

지난 85년의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石油환산 56,450千톤으로 잠정 집계된 바, 이는 5%의 경제성장과 차량급증으로 수송용에너지 소비가 전년대비 16.8% 증가한 반면, 광공업의 低成長으로 인한 산업용 에너지 증가율의 현저한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부존자원

〈表-1〉 85年 總에너지 需給實績(잠정)

	單位	1984		1985 (잠정)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石油	千배럴	194,559	52.3	1.7	191,689	48.7	△ 1.5
無煙炭	千 톤	24,154	21.2	11.5	25,202	21.2	4.3
有煙炭	"	12,744	15.6	32.3	14,965	17.5	17.4
水力	GWH	2,399	1.1	△11.9	3,589	1.6	49.6
原子力	"	11,792	5.5	31.5	16,685	7.4	41.5
薪炭	千 톤	8,355	4.3	△ 1.6	7,255	3.6	△13.2
(電力)	(GWH)	(47,051)	(-)	(10.4)	(50,600)	(-)	(7.5)
總 에너지	千TOE	53,850	100.0	8.4	56,450	100.0	4.8
海外 의존도	%	75.6		76.4			

〈表-2〉 부문별 에너지 수급실적

(單位: 千TOE)

	1984			1985(잠정)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産業	18,822	41.5	5.9	19,108	40.5	1.5
輸送	6,541	14.4	13.2	7,638	16.1	16.8
家庭	17,075	37.7	11.2	17,710	37.5	3.7
商共	2,879	6.4	5.9	2,781	5.9	△ 3.4
기타						
最終에너지計	45,317	100.0	8.9	47,237	100.0	4.2

의 빈약으로 소요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전년대비 0.8% 포인트 심화된 76.4%로 나타난 바,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계속 심화될 전망이므로 이의 해결방안모색이 우리 에너지 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85년 에너지 수급상의 特徵

가. 石油소비감소 및 石油의존도 감축

지난 70年代 연평균 14%씩 증가하여 오던 석유 소비는 85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의 추진과 脫石油전원개발등 석유의존도 감축정

책의 지속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함으로써 총에너지중 석유비중은 48.7%로 떨어져 지난 70년 이후 최초로 5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일련의 석유소비감축정책이 상당한 결실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表-3〉 석유의존도 변화추이

	1970	1975	1978	1980	1984	1985
석유의존도(%)	47.2	56.9	63.5	61.3	52.3	48.7

나. 石炭소비의 증가

石炭중 무연탄은 공급 및 가격의 안정으로 가정 연료로서의 연탄選好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전년대비 4.3%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유연탄은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의 주된 석유대체에너지로서 특히 산업 및 발전부문에 크게 활용되어 전년대비 17.4%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表-4〉 石炭소비 추이

	1983	1984	1985
무연탄소비증가율(%)	3.9	11.5	4.3
유연탄소비증가율(%)	13.3	32.3	17.4
석탄의존도(%)	33.1	36.8	38.7

이러한 석탄소비의 급증은 85년의 총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85년 총에너지 증가율 4.8%중 3.8% 포인트가 석탄소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 産業用 에너지소비의 현저한 둔화

지난 81~84년중 산업용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5.1%씩 증가하여 왔으나, 85년에는 광공업성장이 전년대비 5%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는 1.2% 증가에 그침으로써 동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기반이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

〈表-5〉 産業部門 에너지 소비추이

	1983	1984	1985
에너지소비증가율(%)	6.5	5.9	1.2
광 공 업 성 장 륜 (%)	10.8	14.3	5.0
산업부문에너지탄성치 (산업에너지증가율 / 광공업성장률)	0.60	0.41	0.24

3. 에너지源別 수급실적

가. 石 油

85년중 石油소비는 전년대비 1.5% 감소함으로써 석유의존도는 84년의 52.3%에서 48.7%로 크게 감축되어 지난 71년 이후 최초로 50%이하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비록 수송용 수요는 높은 차량증가율(21.0%)로 계속 급증하고 있으나, 脫石油전원개발에 의한 발전용수요 감소와 산업생산 둔화에 따른 산업용 수요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요 유종별로 85년중 석유소비 증가율을

〈表-6〉 부문별 석유소비

	산 업	수 송	가 상 업	공 공 기	발 전	計
소비량 (千BBL)	68,222	53,862	25,241	16,422	27,942	191,689
증가율 (%)	△ 0.1	16.6	1.7	△ 4.6	△ 26.5	△ 1.5

〈表-7〉 주요 油種別 소비증가율(%)

휘발유	등유	경유	B-C油	LPG	나프타	항공유	아스팔트
28.1	△3.2	4.2	△11.4	17.3	4.2	△3.3	14.8

살펴보면, 휘발유는 28.1%, 輕油는 4.2%, LPG는 17.3% 증가한 반면, B-C油는 11.4% 감소함으로써 輕質油 비중이 84년의 56.2%에서 85년에 60.1%로 증가하여 석유소비구조가 경질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석 탄

지난 해 우리나라 무연탄 소비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25,202千톤으로 잠정 집계된 바, 그중 가정·상업용인 연탄소비는 8.1% 증가함으로써 전체 소비증가세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무연탄가격이 타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공급이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난방연료로서의 연탄選好현상의 지속과 전통적 연료인 신탄소비 감소분이 연탄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85년중 유연탄 소비는 발전용 수요의 급증과 시멘트용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17.4% 증가한 14,965千톤으로 잠정집계되었는데,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제철용과 시멘트용이 각각 1.1%, 4.9% 증가에 그친 반면 발전용은 56.6% 증가하였다.

〈表-8〉 石炭 소비추이

	1983	1984	1985
무연탄소비량(千톤)	21,670	24,154	25,202
(증가율, %)	(3.9)	(11.5)	(4.3)
유연탄소비량(千톤)	9,633	12,744	14,965
(증가율, %)	(13.3)	(32.3)	(17.4)

다. 전 력

85년중 전력소비는 84년 하반기 이래의 증가율 둔화추세의 지속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50,600GWH로 잠정집계되었으며, 전력 최대수요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9,349MW로 나타났다.

한편 총에너지 소비중 발전부문에 투입된 에너지는 24.0%로 84년의 23.4%보다 다소 늘어났으며, 발전전력량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58,166GWH로 나타났는데 적극적인 脫石油 전원개발추진에 따라 석유발전량은 급감하고 유연탄 및 원자력발전량이 크게 늘어났다.

〈表-9〉 電力 소비추이

	1982	1983	1984	85(잠정)
電力수요 (GWH)	37,880	42,620	47,051	50,600
증가율 (%)	6.9	12.5	10.4	7.5
最大수요 (MW)	6,661	7,602	8,811	9,349
증가율 (%)	8.4	14.1	15.9	6.1
1인당電力소비 (KWH)	931	1,061	1,160	1,228

〈表-10〉 源別 發電電力量 구성비 추이

(單位: %)

	1982	1983	1984	85(잠정)
石 油	80.5	67.3	48.7	34.2
無 煙 炭	6.1	6.1	6.0	4.9
有 煙 炭	-	2.7	18.9	26.1
水 力	4.6	5.6	4.5	6.2
原 子 力	8.8	18.3	21.9	28.6

4. 에너지 수입실적

85년 중에는 총에너지 수요가 4.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대전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64.9억달러에 그쳐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도입에 있어 공급의 안정

〈表-11〉 에너지 수입액 추이

	1983	1984	85(추정)
에너지輸入額 (百萬달러)	6,584	6,635	6,488
原油導入單價 (\$/B)	29.9	29.08	27.75
石炭導入單價 (\$/톤)	59.1	54.39	51.03

성 못지 않게 경제성을 중시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세를 최대한 활용한 경제적인 원유도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Ⅲ. 86년도 에너지 需給計劃

1. 세계에너지환경 전망

86년 세계에너지시장은 石油수요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회복됨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石油공급은 OPEC제국의 생산할당량 준수가 곤란할 뿐 아니라, 非OPEC제국의 공급량증대로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되어 국제석유시장의 전반적인 약세가 전망된다. 또한 국제 석탄시장은 油價의 지속적인 인하전망과 中共, 콜롬비아등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증대로 석탄가격 역시 계속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表-12〉 세계의 1차에너지 소비

	1980	1985	1986
소 비 량 (백만TOE)	6,896.2	7,345.6	7,492.5
구 성 비 (%)	100.0	100.0	100.0
石 油	43.5	38.4	37.7
가 스	18.8	19.8	19.8
석 탄	29.1	30.5	30.6
수 력	6.1	6.9	7.0
원 자 력	2.5	4.4	4.9

2. 국내경제전망 및 에너지수급정책방향

올해 우리경제는 계속적인 물가안정세 지속으로 인한 경제안정기반 정착으로 7%의 실질성장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민간소비수준의 적정을 유도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고용기회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며, 기업은 생산성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힘써 선진국들의 예상되는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외채감소를 위한 범국민적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노력을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表-13〉 경제운용 목표

	1984	85(추정)	86(전망)
經濟成長率(%)	7.5	5.0	7.0
광 공 업	14.3	5.0	8.0
도매물가상승률(%)	1.6	1.0	2~3
소비자물가상승률(%)	2.4	3.0	3内外
經常收支(億달러)	-13.7	-7~-8	-3~+3
輸出(통관기준)(億달러)	292	301	330
輸入(통관기준)(億달러)	306	304	325

이러한 경제의 안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년도 에너지수급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세부 수급계획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지원을 위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둘째, 石油의존도 감축정책의 지속적추진

셋째,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네째, 에너지수급구조의 적정화와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두고, 石油의존도를 85년의 48.7%에서 86년에 46.2%로 2.5% 포인트 감축키로 하였으며,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문별 에너지 소비절약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GNP에 대한 에너지 투입비중을 85년 1.09(TOE/80불변 백만원)에서 86년에는 1.08로 낮추는 한편, 새로운 에너지源으로서 LNG를 신규도입키로 하였다.

3. 86에너지 需給計劃

가. 總에너지 需要展望

86년의 총에너지수요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59,914千톤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안정적 경제성장의 지속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증대하리라는 예상에 근거한 것이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石油은 산업생산증가와 발전

〈表-14〉 주요 에너지 관련지표 추이

	1984	85(잠정)	86(계획)
總 에너지 수요(千TOE)	53,850	56,450	59,914
증가율(%)	8.4	4.8	6.1
GNP성장률(%)	7.5	5.0	7.0
에너지 / GNP彈性值	1.12	0.96	0.87
에너지 / GNP비중(TOE / 80불변, 百萬元)	1.10	1.09	1.08

〈表-15〉 86年 總에너지 需給計劃

	단 위	1985(잠정)			1986(계획)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石油	千배럴	191,689	48.7	△ 1.5	194,894	46.2	1.7
無煙炭	千톤	25,202	21.2	4.3	26,965	21.4	7.0
有煙炭	"	14,965	17.5	17.4	15,470	17.0	3.4
水力	GWH	3,589	1.6	49.6	4,300	1.8	19.8
原子力	"	16,685	7.4	41.5	24,615	10.3	47.5
L N G	千톤	-	-	-	158	0.3	-
薪炭	"	7,255	3.6	△13.2	6,297	3.0	△13.2
(電力)	(GWH)	(50,600)	(-)	(7.5)	(54,400)	(-)	(7.5)
總 에너지	千TOE	56,450	100.0	4.8	59,914	100.0	6.1
海外의 존도	%		76.4			77.7	

연료대체속도 둔화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1.7%)이며, 무연탄 및 유연탄은 각각 전년대비 7.0%, 3.4% 증가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광공업성장이 회복되면서 산업에너지 수요는 3.4% 증가가 예상되며 수송부문 및 가정·상업부문은 각각 10.5%, 3.7%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국내부존자원 빈약에 따른 국산에너지 공급 물량의 한계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85년 76.4%에서 86년에는 77.7%로 심화될 전망이다.

4. 에너지源別 수요전망

① 石 油

올해 석유수요는 85년 대비 1.7% 증가한 194,894千배럴로 전망되는 바, 이는 높은 차량증가율로 인한 수송용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산업부문 석유수요 감소노력과 발전용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석유의존도 역시 85년의 48.7%에서 86년에는 46.2%로 2.5% 포인트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NP 단위당 석유투입비중은(80불변백만원당 투입석유BBL) 3.53으로 나타나 85년대비 4.9%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 16〉 石油수급 추이

	1983	1984	85(잠정)	86(계획)
석유수요 (千배럴)	191,294	194,559	191,689	194,894
(증가율, %)	(5.6)	(1.7)	(△1.5)	(1.7)
석유의존도(%)	56.2	52.3	48.7	46.2
석유집약도 (BBL/80불변, 백만원)	4.18	3.96	3.71	3.53

〈表 - 17〉 부문별 石油수급계획

	산 업	수 송	가 상 정 업	공 기 공 타	발 전	計
소비량 (千Bbl)	70,196	59,601	25,950	16,318	22,829	194,894
증가율 (%)	2.9	10.7	2.8	△ 0.6	△18.3	1.7

한편 주요 유종별로는 휘발유 18.0%, 경유 5.7%, 항공유 14.0%, LPG 18.2% 증가하며, 석유화학산업의 호황전망에 따라 나프타소비는 10.4%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소비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B-C油는 발전용 수요의 감소로 9.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등유수요도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가정부문에 사용되는 연료의 고급화 경향을 감안한 결과이다. 또한 공해방지 및 국민소득 수준향상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LNG의 수요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는 85년 대비 83.8% 늘어난 154,000千m³를 공급할 방침이며, 공급대상가구도 전년대비 36.7% 늘어난 536千세대로 늘릴 방침이다.

〈表 - 18〉 石油類 油種別 需給計劃

(單位: 千배럴)

	1984		1985(잠정)		1986(계획)	
		증가율 (%)		증가율 (%)		증가율 (%)
揮發油	5,395	16.7	6,911	28.1	8,154	18.0
燈 油	8,044	2.8	7,784	△ 3.2	7,609	△ 2.2
輕 油	49,906	11.5	52,006	4.2	54,965	5.7
B-A油	1,994	1.3	1,856	△ 6.9	1,768	△ 4.7
B-B油	927	11.8	1,015	9.5	1,042	2.7
B-C油	79,751	△ 9.4	70,651	△11.4	63,842	△ 9.6
케트油	7,881	4.6	7,624	△ 3.3	8,692	14.0
에너지 油 計	153,898	△ 1.1	147,847	△ 3.9	146,072	△ 1.2
프로판 부 탄	5,304	34.3	6,809	28.4	8,604	26.4
	6,897	15.3	7,507	8.8	8,323	10.9
가스類 計	12,201	22.9	14,319	17.3	16,927	18.2
나프타 용 제	25,105	9.8	26,158	4.2	28,880	10.4
아 스톨	800	△16.1	435	△45.6	415	△ 4.6
	2,555	28.7	2,933	14.8	2,600	△11.4
非에너지 油計	28,460	10.3	29,526	3.7	31,895	8.0
합 計	194,559	1.7	191,689	△ 1.5	194,894	1.7

② 석 탄

유일한 국내부존에너지자원인 무연탄수요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26,965千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바, 그중 주된 수요부문인 가정·상업부문과 발전용 수요는 각각 전년대비 7.0% 증가하여 산업용 수요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무연탄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무연탄생산을 극대화하며 정부 및 민간비축을 강화하는 한편, 연탄의 탄질향상을 위해 수입무연탄 혼합비율을 지난해 12%선에서 올해에는 15%선으로 제고하여 탄질유지를 기할 계획이다.

〈表-19〉 무연탄 수급추이

	1984	85(잠정)	86(계획)
無煙炭 수요 (千톤)	24,154	25,202	26,965
증가율(%)	11.5	4.3	7.0
家庭·商業用 수요 (千톤)	21,316	23,034	24,640
증가율(%)	12.4	8.1	7.0
無煙炭 생산 (千톤)	21,370	22,400	23,200

최근 석유대체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 유연탄 수요는 발전용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로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각 수요처별로 살펴보면 발전용은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반면, 산업용은 4.5% 증가가 예상되어 총에너지중 유연탄비중은 85년의 17.5%에서 86년 17.0%로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表-20〉 유연탄 수급추이

	1984 -	85(잠정)	86(계획)
有煙炭 수요 (千톤)	12,744	14,965	15,470
증가율(%)	32.3	17.4	3.4
産業用有煙炭 (千톤)	9,402	9,730	10,172
증가율(%)	3.5	3.5	4.5
發電用有煙炭 (千톤)	3,342	5,235	5,298
증가율(%)	512.1	56.6	1.2

③ 전 력

올해 전력수요는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어 전년대비 7.5%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였던 지난 75~79년의 연평균 수요증가를 17.3%와 대비하면 상당히 안정된 수준으로 分析된다. 발전전력량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63,785GWH로 계획하고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해 석유발전비중을 낮추는 한편 새로이 LNG 발전을 시작함으로써 지난해 34.2%였던 석유발전비중을 25.1%로 낮추고 원자력발전비중을 38.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表-21〉 에너지源別 발전구성비 추이

	1983	1984	85(잠정)	1986
석유발전비중%	67.3	48.7	34.2	25.1
석탄 "	8.8	24.9	31.0	28.2
원자력 "	18.3	21.9	28.6	38.6

④ 기 타

급년중 신탄수요는 정부의 산림보호 육성정책과 상대적인 열등제로 인한 수요감소 및 연탄대체추세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 바, 이러한 신탄수요 감소추세는 앞으로 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부터 새로운 에너지源으로서의 LNG를 발전부문부터 시험도입키로 함으로써 총에너지중 0.3%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다. 에너지 부문별 수요전망

86년중 산업부문 에너지수요는 광공업부문의 호전전망(8.0%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부문의 에너지소비절약기반의 정착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한 19,763千TOE에 그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액 단위당 에너지 투입비중은 전년대비 약 4.3%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한 수송에너지의 높은 증가율은 점차 그 증가효과가 약화되기 시작하여 86년에는 10.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최종에너지중 차지하는 비중은 85년의 16.

〈表-22〉 부문별 에너지 需給展望

(單位: 千TOE)

	1985(잠 정)			1986(계 획)		
	19,108	구성비 (%)	증가율 (%)	19,763	구성비 (%)	증가율 (%)
産業	19,108	40.5	1.5	19,763	40.0	3.4
輸送	7,638	16.1	16.8	8,436	17.1	10.5
家庭	17,710	37.5	3.7	18,357	37.2	3.7
商業	2,781	5.9	△ 3.4	2,809	5.7	△ 1.0
公共						
最終에너지計	47,237	100.0	4.2	49,365	100.0	4.5

라. 에너지 수입계획

86년중 에너지 수입대전은 국제油價하락이 예견되는 가운데, 에너지 해외의존도의 심화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68.7억달러로 전망되는 바, 이중 석유수입금액은 56억달러로 전체 수입대전의 81.5%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국제에너지사정의 안정국면과 油價하락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성을 추구하는 신축성 있는 도입정책을 전개한다면 계획수준을 훨씬 하회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 총수입액중 에너지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년의 21.3%에서 86년에 21.1%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국내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V. 맺는말

1%에서 86년 17.1%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금년중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85년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가전제품 보급에 따른 가정·상업용 전력수요가 전년대비 9.8% 증가하고 石油 및 연탄소비는 각각 2.8%, 7.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석유위기로 인한 격동기가 지나가고 국제에너지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공급에는 일단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장래의 에너지 안정공급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의 안정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수급구조를 적정화함으로써 어떠한 대내외 충격에도 이를 잘 흡수할 수 있는 방

〈表-23〉 에너지 輸入計劃

	單位	1985(暫 定)			1986(計 劃)		
		物 量	單價(달러)	金 額 (백만달러)	物 量	單價(달러)	金 額 (백만달러)
石 油	千배럴	196,352		5,394	209,020		5,595
一原 油	〃	198,812	27.75	5,517	218,177	27.03	5,898
•內 需 用	〃	173,684	27.81	4,830	185,718	27.08	5,029
•貨加工用	〃	25,128	27.34	687	32,459	26.79	869
一石 油 製 品	〃	22,668	24.88	564	23,302	24.28	566
石 炭	千 屯	18,654	51.03	953	20,370	51.19	1,043
一無 煙 炭	〃	2,315	50.61	117	3,920	51.78	203
一有 煙 炭	〃	16,339	51.17	836	16,450	51.04	840
L N G	〃	—	—	—	172	251.98	43
核 燃 料	屯 U	207	—	141	224	—	185
計	百萬\$		6,488			6,866	
總輸入對比比重	%		21.3			21.1	

註: 1) 석유는 원유중 내수용과 석유제품의 합계임.

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에너지 수급계획에도 이와 같은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아무리 최선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갖고 일관성있

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자체 이용합리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의 극소화를, 가정은 근점·절약을 통한 저축증대등 모두가 합심노력할 때 에너지 수급구조의 적정화는 달성될 수 있으며, 제 2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 共產圈石油情報 □

소련의 長期에너지計劃

소련은 2000년을 向한 야심적인 長期에너지戰略을 수립하고 금년부터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가스生産量이 2000년까지 60~80% 늘어나며, 86~90년간의 5개년 계획중 소련은 石油生産증대, 石油化學部門의 성장, 精製施設의 고도화 및 가스파이프라인의 확장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에서 소련의 長期에너지計劃을 부문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소련은 石油 이상으로 가스증산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생산목표량을 1985년의 22.59Tcf(10^{12} 입방피트)에서 1990년 29.48Tcf, 그리고 2000년에는 36.01~40.6Tcf로 늘려 잡고 있다(美國의 최대 가스생산량은 1973년의 22.6Tcf). 또한 가스 처리의 자동화 및 시설의 이용효율을 증대시켜 가스業의 노동생산성을 1990년까지 40% 증대시킬 계획이다.

소련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첫째는 西部 시베리아 지역의 가스田을 집중개발하여 이 지역의 가스 공급비중을 1985년 57%에서 1990년에는 65% 이상, 2000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특히 86~90년 기간에는 Yamburg 및 Urengoi 가스田이, 90년대 이후에는 Yamal 반도의 가스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재 주요한 가스田으로 분류되는 Ural Ukraine 등지의 생산은 점차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둘째, 隨伴가스(Associated gas)의 이용을 증

대시킨다. 현재 西部시베리아油田에서 석유와 함께 생산되는 수반가스중 상당부분이 소각되고 있으나, 1990년까지 燒却率을 10% 이하로 감소시킨다.

셋째, 電力 및 수송용 가스수요를 늘린다. 西部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量의 가스를 소비하기 위해 ob江 중류지대를 따라 대규모의 신규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액화 및 압축가스를 개발하여 자동차용 가스소비를 촉진시킨다.

소련의 石油생산은 1984년 이후 계속 감소되어 왔으며, 1985년 산유량도 81~85 5個年計劃下의 목표량인 12.4~12.9백만b/d에 크게 미달하는 12.0백만b/d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85~90년의 新 5개년계획에서는 산유량 목표를 12.6~12.8백만b/d로 잡고 생산증대를 위한 2가지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海洋油田의 개발이다. 소련은 조만간 카스피해지역의 深海 油田을 개발할 예정이며, 기타 지역에서도 석유탐사 활동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1990년 까지는 海洋油田의 산유량이 전체의 5%에 불과하여 중요한 역할은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생산효율성의 제고이다. 소련의 油田은 대부분 흑한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효율이 극히 낮은 실정이며, 이는 산유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소련은 향후 좀더 합리적인 油田開發技法의 도입, 현대적인 탐사장비 및 技術도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